

# 권력의 '인간감시방식' 낱낱이 해부

미셸 푸코 지음 「감시와 처벌」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지성으로 철학과 역사학, 문학비평 등의 광범한 영역에서 아직도 그 영향력이 시들지 않고 있는 미셸 푸코(1962~1984)가 최근 2~3년 사이 두드러지게 우리들 관심의 전면으로 부상, 이제는 '푸코현상'이라 이를 만한 일종의 붐을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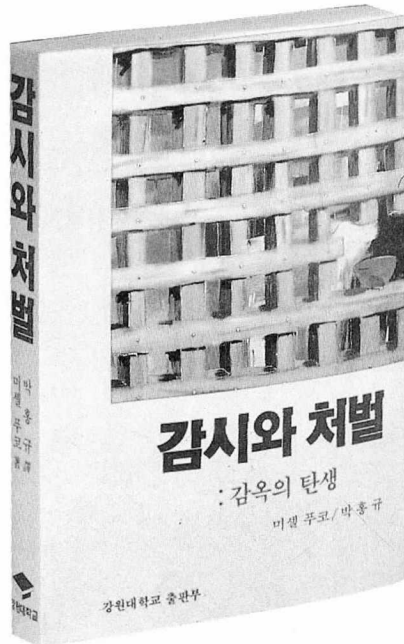
그동안 국내에서 출간된 책만 하더라도 「性的 역사」를 抄譯한 「性은 억압되었는가」(박정자, 인간사, 1978)를 필두로 「말과 사물」의 완역본(이광래, 민음사, 1987)과 편저서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김현, 문학과지성사, 1989)이 나와 있고, 연구서도 「미셸 푸코,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까지」(이광래, 민음사, 1989)와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드레피스 외/서우석, 나남, 1989) 등 국내저술 및 번역물이 각 1종씩 선을 보인 바 있다. 그밖에도 본격적인 「푸코전집」을 기획하는 출판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단행본형태는 아니지만 일부 문예지를 통해 푸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푸코열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번에는 그의 「감시와 처벌」이 美하버드대 인권연구소 객원교수로 있는 박홍규교수의 완역으로 강원대출판부에서 출간됐다. 이 「감시와 처벌」은 1975년에 출간된 푸코의 後期代表作으로 오늘날의 우리상황과 관련해 특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 이른바 「감시」와 「처벌」이 현대사회의 제도적 관리장치로서 어떻게 조직·관리·통제되는가를 날카롭게 분석해주고 있어 흥미와 주목을 끈다.

## 신체계의 잔인성이 갖는 이중적 의미

푸코에 의하면 현대사회의 인간관리장치로 최고의 모델은 '원형감시방식'인데, 학교·兵營·병원·공장을 막론하고 그같은 장치 속에서는 '감시당하는' 아동·병사·환자·노동자는 물론이거니와, '감시하는' 교사·상관·의사·공장장조차도 결국은 감시되고 관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푸코는 제1부 「受刑者の 신체와 신체계의 화려함」에서 원형감시방식 탄생의 前史로 봉건군주시대의 통치방식을 다룬다. 그에 의하면 수행자의 신체란 "화폐와 생산력이 거의 발전하지 못한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 사형·참수형·화형·능지처참형 등을 가능케 했다는 것. 이러한 방법들은 생명을 수만번의 죽음으로 분할하여 생명의 정지 이전에 최대한의 정교한 고통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체형은 그 '극도의 잔인성'이 갖는 이중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것은 진실의 화려함과 권력의 화려함을 다같이 보증하면서 '공포의 정치학'으로 연결된다. 공포의 정치학은 범죄자에게 그 죄의 대가로 신체형을 부과함으로써 공개처형장에 모인 군중들에게 진실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것은 통치권력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모든 신체형은 대개의 경우 공개된 사통팔달의 장소에서 군중들이 입회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완전하고 엄격하게 행해질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공포의 祭式은 오래 가지 못한다. 사형집행인들의 범죄자에 대한 공개된 잔인성이 점차 군중들의 분노를 사게 되기 때문이다. 또 범죄자가 높은 신분이거나 부자일 경우 비교적 가벼운 형벌에 처해지는 불평등이 속출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 가혹성 완화되나 형벌의 효과는 증대

봉건시대에서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하면서부터는 형벌이 보다 '순화'된다. 구경거리나 본보기로 행해지던 신체형은 이제 단순히 비인간적인 것만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전시대와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현대사회의 인간 관리장치가

어떻게 조직되고 운용되는지에 대한

날카롭고 독특한 분석을 제공한다.

서구의 합리주의가 일종의

'착란'임을 일깨우는

그의 해체주의적 지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권력에 의한 감시와 처벌의 양상을

낱낱이 해부한다.

는 다른 새로운 형벌이 제안되는데, 신체가 아닌 정신을 처벌하는 정신형, 곧 자유형이 그것. 푸코는 제2부에서 그가혹성은 완화되되 효과는 더욱 큰 자본주의사회의 형벌을 다룬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형벌에 관한 일종의 '이성적 미학'이 생겨난다. 공포의 정치학에서 '司法의 승리'로 이행된다. 작업장에서의 강제노동과 그 노동에 의해 감옥의 재정이 유지되는 자본주의사회의 형벌은, 감옥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철저한 시간의 배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형벌의 효과를 보다 정교화할 수 있었다고 푸코는 지적한다.

「감시와 처벌」 제3부에서 푸코는 감시의 효과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을 제공한다. 감시는 각 개인에게 '일정한' 공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수도원의 예가 서서히 확대되어 사립학교와 병영, 병원과 공장으로까지 재빨리 확산되었다. 그곳에서 각 개인은 복종과, 나아가 시간과 동작의 최대한의 절약을 강요받는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세분화·고정화되고 폐쇄된 공간에서의 '감시의 극치'가 일찍이 J.벤담이 착안했던 원형감시시설이다. 그 원형 건물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노출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원형건물의 중앙탑에서 내부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일체를 보지만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이 원형감시장치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으로 만들며 물개인화시킨다.

따라서 그곳에선 수행자에게 선행을, 노동자

에게 직업을, 학생에게 면학을, 환자에게 처방의 엄수를 강제하기 위해 어떠한 폭력적 수단에도 호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완벽한 제도적 관리장치에 의해 모든 순간순간에 권력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해지며, 범죄와 오류는 그것이 미처 행해지기도 전에 언제나 발각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완벽한 관리장치, '원형감시방식'

제4부에서 푸코는 그러나, 원형감시방식에 의한 감시와 처벌이 오히려 반사회적 집단을 양산하며, 나아가 '범죄의 병영'을 형성시킨다는 사실을 낱낱이 폭로한다. 예컨대 더 큰 이익을 위해 범법을 자행하는 부자들은 비호받으면서도 호구지책으로 절도를 저지르는 자들은 처벌되고 말아, 순화를 목표로 하는 감옥이 오히려 재범자의 수를 늘려가는 역할을 한다고 푸코는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푸코는 법이 "만인의 이름으로 만인을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라고 반박한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감시에서 처벌」의 순서에 맞춰 읽을 수만은 없다. 이 책은 역으로 먼저 처벌을 다루고 그 다음에 감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역순의 효과 역시 체제전복적으로 사고하며, 가능하면 체제 밖의 끝까지 나가보려고 한 푸코 사유체계의 소산일지 모른다.

그러나 서구의 합리주의가 하나의 '착란'임을 보여주는 해체주의적 지성, 권력과 지식의 연계에 대한 탁월한 통찰, 그리고 어떤 사유의 제한도 용납하지 않는 철학함의 자세 등은 충분히 우리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사실이다. 그같은 관심이 서구의 사상에 대한 경박한 호기심 때문에 유발된 것인지, 아니면 그의 사상이 우리시대를 해명하는데 유용한 대안이기 때문에 유발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어쨌든 이 책 「감시와 처벌」을 읽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 반경환 기자